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PN풍년(024940)

소재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김연재 전문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 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 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N풍년(024940)

품질경쟁력과 제품 인지도를 통한 주방용품 사업 다각화

기업정보(2021/01/01 기준)

대표자	유재원
설립일자	1973년 11월 17일
상장일자	1995년 01월 04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 주방용품 제조업
주요제품	압력솥, 금속 주방용품, 주방가전

■ 국내 압력솥 점유율 1위 기업

PN풍년(이하 동사)은 1954년 세광알미늄 공업사로 창업한 후 1973년 세광알미늄 공업(주)로 법인 전환된 기업으로 67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압력솥을 상용화하여 가정에 보급한 장수기업으로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 2020년 이후에도 동사의 압력솥은 국내 점유율 1위로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디자인 경영을 통해 종합 주방용품 전문 업체로 발돋움하였다.

■ 압력솥 안전성 강화기술로 품질경쟁력 확보

동사는 2004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안전성 강화기술을 꾸준히 개발하여 특허로 구축하는 등 압력솥 분야에서 경쟁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호추, 안전밸브, 압력표시바, 손잡이 안전장치, 신호대 너트 등 5중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뚜껑 결합부, 안전밸브, 손잡이 개폐장치 등을 강화한 특허를 등록하여 상용화 중에 있다.

■ 브랜드 경쟁력을 통한 주방용품 사업 다각화

최근 주방용품 업계는 다수의 중소기업 참여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해외 명품브랜드의 직구 확대 등 위협 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국내 브랜드 업체들은 1~2인 가구의 증가에 맞춰 소형 주방용품 제품군 확대와 소형 가전 시장 진출을 통해 활로를 찾는 중이다. 동사 역시 2010년대 중반부터 가전 연구개발에 돌입하여 최근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주력 제품으로는 전기압력밥솥, 믹서기, 전기 그릴, 인덕션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인덕션 등 다양한 가전제품의 렌탈 사업과 주방용품 구독 사업을 진행하는 등 동사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주방용품 관련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세정보(2021/10/12 기준)

현재가(원)	6,07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607
발행주식수	10,000,000
52주 최고가(원)	13,950
52주 최저가(원)	3,355
외국인지분율	5.07%
주요주주	유재원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개별)	618	(7.9)	9	1.4	12	1.9	3.7	2.5	46.6	120	3,523	18.7	0.6
2019 (개별)	546	(11.7)	(13)	(2.5)	54	9.9	15.2	10.7	37.0	542	4,073	4.1	0.5
2020	577		5	0.9	23	4.0			24.2	231	4,444	17.0	0.9

기업경쟁력

국내 1위 압력솥 업체

■ 국내 최초 압력솥 상용화

- 국내 쌀 품종에 맞는 압력솥의 국산화 개발로 1970년대 주방의 현대화에 기여

■ 2009년 이후 디자인 경쟁력 강화

- 다양한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출품, 수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확대

브랜드 신뢰도, 경쟁력을 통한 사업확대

■ 주방용품 다각화

- 금속 소재 및 가공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라이팬, 냄비 등 기물류 브랜드 및 제품 확대

■ 주방가전 사업 진출

-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전기 압력밥솥, 인덕션 등 중소형 가전 제품 개발 및 사업화
- 중고가 가전에 대한 렌탈 사업부 신설 및 강화

핵심기술 및 취급 품목

우수한 손주물 및 안정성 강화기술

■ 소재기술

- 손주물 제품의 정밀성, 열전도도 향상
- 금속 접합기술인 5중 클래드 기술 적용으로 우수한 제품 제조

■ 압력솥 안전성 강화기술

- 압력솥의 5단계 안전장치 구축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 확보

주요 제조제품



압력솥(주물, 클래드)

기물류(냄비, 프라이팬 외)

주방가전

ESG 현황

Environment

항목	현황
환경 정보 공개	■
환경 경영 조직 설치	■
환경 교육 수준	▣
환경 성과 평가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	□
에너지, 용수 사용	▣
신재생 에너지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Social

항목	현황
인권보호 정책 보유	■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	■
소비자 안전 관련 인증	▣
정보보호 안전 관련 인증	■
사회공헌 프로그램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Governance

항목	현황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	▣
중장기 배당정책 보유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보유	■
대표-이사회 독립성	▣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 업무 교육 실시	■
지배구조 정보 공개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 당사는 환경 교육 뿐 아니라 에너지, 용수사용 절감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이 감소하였음.
-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소비자 안전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주주 의견을 위한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장기 배당정책과 대표, 이사회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본 ESG 현황은 니이스평가정보사가 분석대상 기업으로 임수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분석 시점 및 기업의 참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기업현황

67년 업력의 명품 주방용품 제조업체

동사는 국내 최초로 압력솥을 개발 판매한 이후 현재까지 오랜 기간 풍년 브랜드로 인지도를 구축하였으며, 주방용품 사업 전반으로 경쟁력을 구축 중이다.

■ 개요 및 사업 현황

PN풍년(이하 동사)은 1954년 세광알미늄 공업사로 설립하여 1973년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1995년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1976년 국내 최초로 압력밥솥을 국산화한 업체로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쌀 소비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였다. 2000년도 이후에는 압력밥솥 이외의 주방용품(냄비, 프라이팬 등)에 대한 사업과 전기압력밥솥 개발, 아웃도어용 압력밥솥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2009년부터 디자인 경영을 선언하고 2020년 굿 디자인 어워드 선정, 2021년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으로 제품 인지도를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

■ 주요사업 현황

현재까지도 동사의 핵심 제품은 압력솥으로 국내 최고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기물류(주방용품), 전기류(주방가전) 사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사업부 내 핵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브랜드별로 제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동사의 주요 사업 및 브랜드

압력솥				
	풍년1954	베르투	블랙필	하이클래드
주방용품				
	파비움(냄비류)	샤르텐(프라이팬)	블리스(종합)	
주방가전				
	원팻(전기압력밥솥)	꾸노(유아용 주방용품)	렌탈사업(인덕션 외)	

*출처: 동사 카탈로그(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압력솥은 동사의 핵심 사업부로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풍년1954'는 손주물 제품으로 동사의 오랜 기술노하우를 담고 있는 핵심 브랜드이다. 편의성을 강조한 프리미엄 압력솥인 '베르투', '블랙펠' 및 '하이클래드' 등 색상, 형태, 소재 등 차별화된 제품군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기물류는 핵심 브랜드인 '블리스'와 냄비류인 '파비움', 프라이팬인 '샤르텐' 외에도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주방가전 분야에는 압력 전기밥솥인 원팟, 유아용 죽제조기, 베이비케틀 등 유아용 가전 부분인 꾸노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인덕션 렌탈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 부분은 제품매출(자체생산 및 OEM)과 상품매출(매입 판매), 기타(부품류)로 구성되어 있다. 주물 압력솥 및 판재 압력솥은 경기도 안산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기물류나 전기제품 등은 해외 OEM 제조나 매입 판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0년 반기 대비 제품매출 비중은 감소했지만, 사업 다각화로 인해 기물류와 전기제품이 포함된 상품매출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사업 부문별 매출실적 (단위: 천 원)

구분	2020년 반기	2021년 반기	증감(%)	
PN풍년	제품(압력솥, 기물류, 전기류)	13,157,212	10,761,824	-18.2
	상품(기물류, 전기류)	15,418,027	16,311,838	5.8
	부품류, 기타, 임대	815,476	778,599	-4.5
피엔랩(2020년 설립)	전기류	-	126,846	-
합계	28,762,285	27,979,107	-2.7	

*출처: 반기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보유기술 및 연구개발

동사의 기술 핵심은 주방용품 가공기술과 압력솥 구조기술, 제품 디자인 및 기능성 향상기술이 있다. 가공기술의 핵심은 직접 틀에 넣어 응고시켜 열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중력 주조 기술(손주물)과 스테인리스 내부에 알루미늄이 들어간 통 5중 하이클래드 기술이 있다. 이외에도 압력솥의 안전밸브와 안전장치 등 안전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덕션, 프라이팬류, 믹서기 등 사업 다변화를 위한 제품 개선기술도 구축 중이다.

표 2. 동사 핵심기술

공정기술	구조기술	신제품 개발
 중력주조	 압력솥 안전구조 개발	 주방가전류
 클래드 메탈	신호추, 안전밸브, 손잡이 안전장치, 패킹, 안전캡 등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	제품 디자인 개발과 풀인덕션 IH 접합기술, 풀스텐 전기밥솥, 원터치 믹서기 등 기능성 향상기술
열전도성 및 보온성 향상	가벼움, 열전도성 향상	

*출처: 동사 홈페이지, 카달로그 외(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3. 동사 최근 특허동향

특허 등록번호	출원일	특허명	기술내용
10-2284077	2020.06.24	안전수단이 구비된 압력솔	압력솔의 뚜껑을 안전하게 잠금 해제시키게 하며, 결합 방향성을 제공하여 고장을 방지함
10-2070101	2018.08.20	압력솔용 안전장치	압력솔 뚜껑 손잡이에 구비된 안전장치로 구조를 단순화하고 소요 부품 수를 감소시킴
10-2069540	2018.07.06	압력솔용 비복귀식 안전밸브	안전밸브를 비복귀식으로 하여 이물질에 의해 증기 배출이 막히는 현상을 방지
10-2045452	2018.05.30	조리용 압력솔의 압력해제 밸브 어셈블리	압력해제 밸브 개선으로 솔 내 찌꺼기 확인 및 세척과 증기압 조절을 용이하게 함
10-2048953	2018.04.20	압력솔의 뚜껑개폐장치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개폐시켜 편의성을 제공

*출처: 키프리스(kipris.or.kr)(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시장 현황 및 경쟁사 현황

비전기식 주방제품은 압력솔, 프라이팬, 냄비 등이 포함되는 시장으로 알루미늄제, 스테인리스제, 법랑제, 유리제 등으로 구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도별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제 주방용품 시장 동향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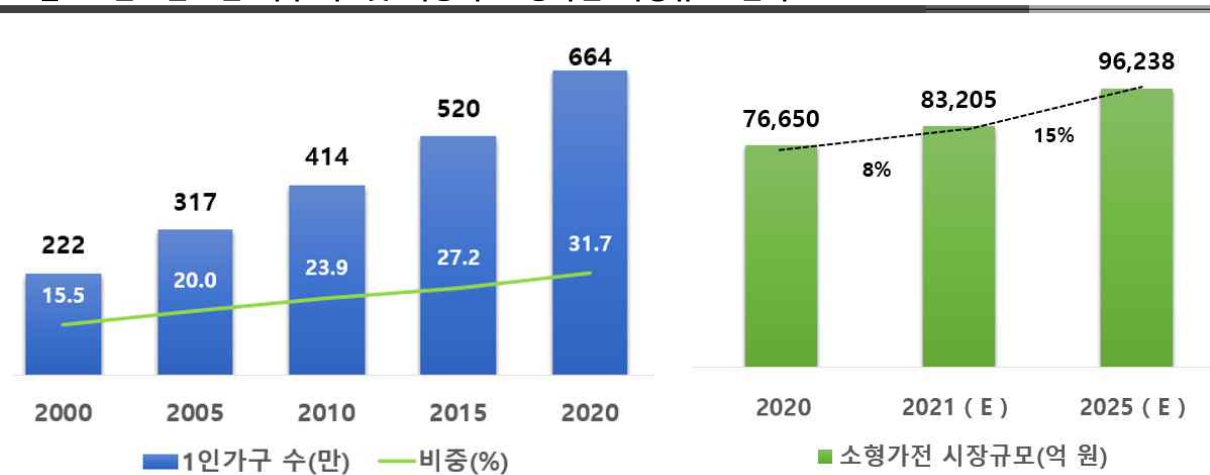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2020년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금속제(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시장은 2019년 8,492억 원의 규모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상태로 나타났다. 해당 시장은 2015년까지 경기 회복, 쿡방열풍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후 경기침체와 중소주방용품 참여로 인한 시장경쟁 악화로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당 산업 내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약 13개 소로 나타났으나 10인 미만 기업은 789개 소로 소기업의 참여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중국 등 해외 제품과 해외 브랜드 제품 직구 확대 등으로 특히 알루미늄제 시장에서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다만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조리 활동의 확대로 전반적인 시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대형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락앤락은 2020년 전년 대비 3.3% 성장하였으며, 테팔 수입업체인 그룹세브코리아는 전년 대비 1.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해피콜은 전년 대비 10%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며, 드림세프 15%, 세신산업은 19% 등 주요 업체들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을 감안 시 2020년 금속제 주방용품 시장은 전년 대비 최소 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연도별 1인 가구 수 및 비중과 소형가전 시장규모 변화



*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유로모니터(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이러한 현상에 의해 최근 국내 주방용품 업계에서 소형가전 시장에 참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최근 밀폐용기 기업인 락앤락은 소형 주방가전 브랜드 제니퍼룸을 운영하는 (주)락커룸코퍼레이션을 인수하여 주방가전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주방용품 제조기업인 해피콜은 토스터, 믹서기, 미니 인덕션 등 주방가전 라인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1인 가구는 총 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3인 이하 가구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소형가전 시장은 8조 3,2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5년까지 15% 증가하여 약 10조 원의 규모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소형가전 시장은 오븐,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 등 기존 제품군 이외에도 도마살균기, 무선주전자, 원액제조기, 그릭요거트 제조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앞으로도 동사를 포함하여 주방용품 제조업체의 소형가전 시장 참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프. 재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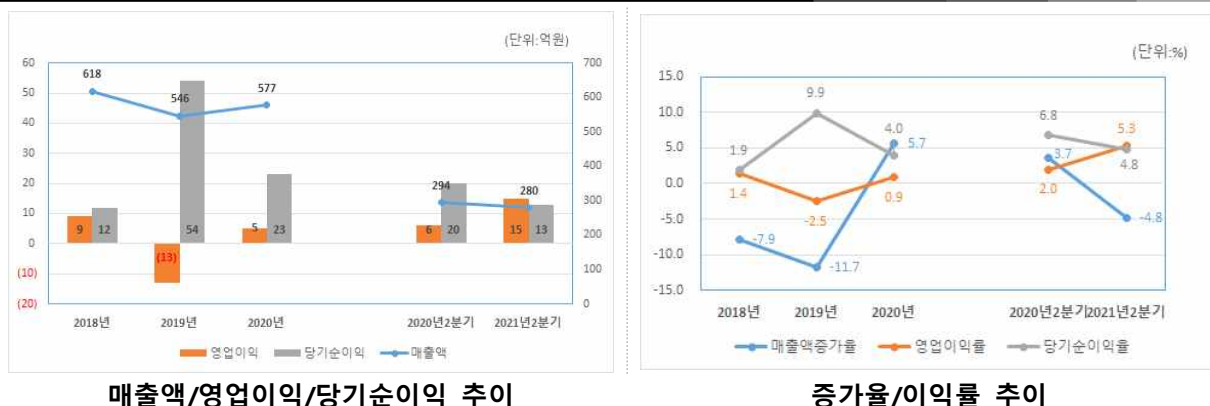
국내 기물 압력솔류 시장 지위 1위 업체

동사는 2020년 10월 가전제품소매업체인 (주)피엔랩의 지분을 취득하며 종속기업으로 보유함에 따라 2020년 결산부터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하기 재무분석 또한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 압력솔 등 주방용품 판매를 통한 매출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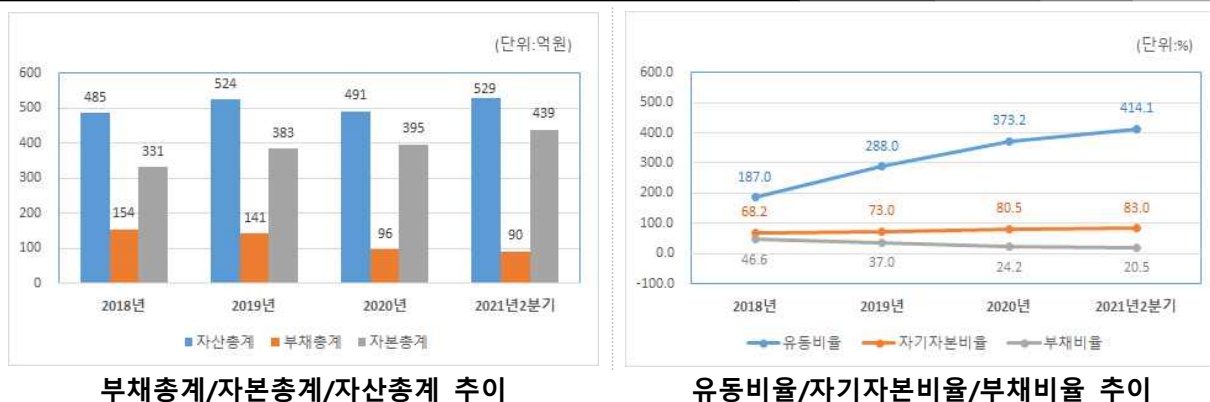
동사는 주력 품목인 압력솔을 중심으로 한 프라이팬, 냄비류 등을 판매하는 주방용품 전문 업체로 국내 기물압력솔 시장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독보적인 시장 내 지위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2020년 결산 매출 577억 원 중 기물압력솔 등의 제품 매출은 255억 원(총매출의 44.2%), 스텐압력솔 등 상품 매출은 306억 원(총매출의 53.0%)을 기록함에 따라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상품 매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림 4. 동사 연간 및 반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반기보고서(2021)

그림 5. 동사 연간 및 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반기보고서(2021)

■ 매출액 일부 회복 및 영업수익성 흑자 전환

동사의 기물압력솔 등 제품 매출은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스텐압력솔 등 상품 매출 실적이 증가하면서 2020년 결산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577억 원을 기록하였다.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618억 원(-7.9% YoY), 2019년 546억 원(-11.7% YoY), 2020년 577억 원(+5.7% YoY)을 기록하며 매출액이 일부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

동사의 매출원가율은 2019년 73.9%, 2020년 73.0%로 매출 일부 회복에 따라 원가구조가 개선되었으며 판관비용 부담 또한 완화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 2019년 -2.5%, 2020년 0.9%를 기록하여 영업수익성이 흑자상태로 전환하였다. 다만,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기타수익 감소로 매출액순이익률 2019년 9.9%, 2020년 4.0%로 매출액순이익률은 하락하였다.

■ 2021년 상반기 매출액 감소하였으나 영업수익성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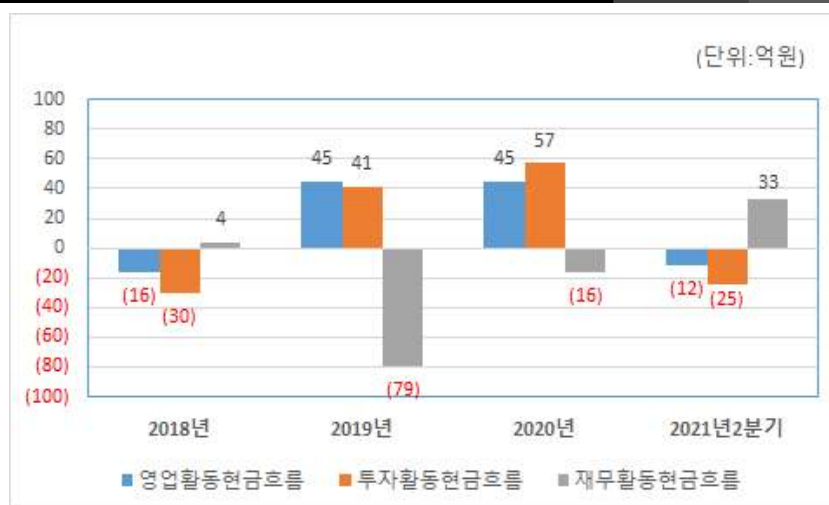
기물압력솔 등의 제품 판매 부진과 임대수익의 감소로 2021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280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판매수수료 등 판관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 5.3%를 기록하여 영업수익성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이익 유보와 자기주식처분을 통해 자본총계가 증가한 가운데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는 등 부채부담이 완화되어 부채비율 20.5%, 자기자본비율 83.0%, 유동비율 414.1%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결산 대비 안정성 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양호한 자금흐름 유지

2020년 결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 흑자 유지와 감가상각비 등 실질적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에 힘입어 영업이익을 크게 상회하는 45억 원을 기록하여 흑자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매각예정자산의 처분으로 벌어들인 투자활동 자금과 함께 배당금 지급 및 자기주식 취득, 차입금 일부 상환에 따른 재무활동 소요자금을 충당하며 양호한 자금흐름을 유지하였다.

그림 6.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반기보고서(2021)

Ⅲ.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브랜드 신뢰도를 기반으로 주방가전 사업 진출

동사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선정한 명문 장수기업으로 오랜 시간 소비자들로부터 압력솥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 왔으며, 이러한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브랜드 주방용품, 주방가전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 주방가전 제품군 확대

동사는 2020년 10월 19일 신규 법인설립 및 5억 원 규모의 주식 10만 주 출자에 대해 공시하였다. 해당 업체는 동사의 자회사인 (주)피엔랩이며, 주요 사업목적은 가전제품 제조 및 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동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주방가전 사업 다각화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중반부터 동사는 전기밥솥 제품을 출시하는 등 주방가전 관련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2019년부터 인덕션, 믹서기, 유아용 주방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과 브랜드 라인업을 구축, 본격적인 사업화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전체 매출실적의 10%를 주방가전 사업에서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표 4. 최근 동사에서 개발한 주요 가전제품

제품군	제품명	출시년월	사진	특징, 기능성
전기밥솥	PN풀스텐 전기압력밥솥	2021년 3월		내구성이 뛰어나고 코팅이 필요 없는 스테인리스 내솥, 28가지 요리 모드 및 6중 안전장치 채택
전기밥솥	MONO(모노) 런치박스	2019년 8월		최대 2인분의 360mL 소형 미니 전기밥솥, 소형 가구뿐 아니라 아웃도어용, 직장에서도 활용 가능
전기주전자 분유포트	꾸노 베이비케틀	2019년 7월		1°C 단위의 온도조절 기능으로 분유, 차, 커피 등 제조 가능, 한번의 터치로 분유에 맞는 온도 설정
인덕션	PN 더 프리존인덕션 전기레인지	2019년 5월		가열 경계가 없는 프리존(Free Zone)방식의 인덕션으로 상판 전체를 화구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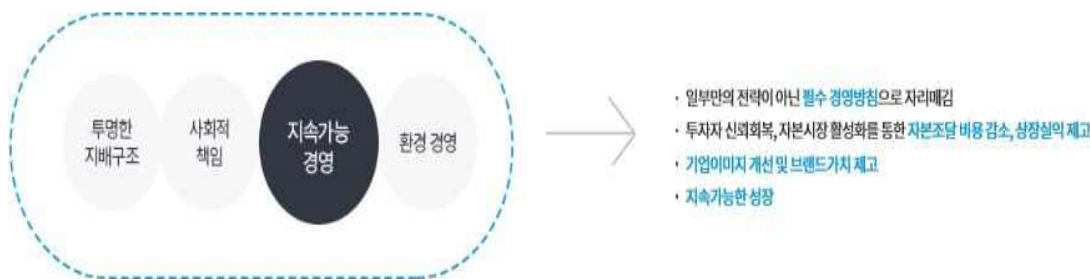
*출처: 동사 홈페이지(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한편 동사는 2019년 5월부터 가전기기 렌탈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자사 제품인 PN 더 프리존 인덕션을 시작으로 LG전자, SK매직 등의 가전제품도 렌탈 판매 중이다. 또한 2020년 9월에는 주방용품 정기 구독서비스인 ‘뽕뽕키친’을 출시하였으며, 인덕션 외에도 압력솥, 냄비, 프라이팬 등을 48개월간 정기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ESG 활동 현황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 평가는 기업엔 지속 가능 경영의 동기를 유발하고 투자자에게는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QESG 가 있다.

그림 7. ESG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2021)

공개 자료 및 질문지를 통해 ESG 항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확인하였다. 동사는 환경정보 공개, 환경 경영 조직 설치, 환경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이 파악되지 않으나, 환경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량은 2019년 2,129toe에서 2020년 1,952toe로 8.3% 감소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동사의 2021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관리사무직 분야에서 2명, 여성 근로자는 관리사무직 47명, 생산직 4명이며, 총 166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0년부터 6회 연속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확보하여 소비자 관점의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KC)인증도 보유 중이다.

표 5.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현황 (단위: 명)

사업 부문	성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계
관리사무직	남	59	1	60
	여	47	1	48
생산직	남	54	-	54
	여	4	-	4
합계		164	2	166

*출처: 반기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6. 보유 인증 현황

인증명	인증일자 및 유효기간	상태
 소비자 중심경영(CCM)	2021-01-01~2022-12-31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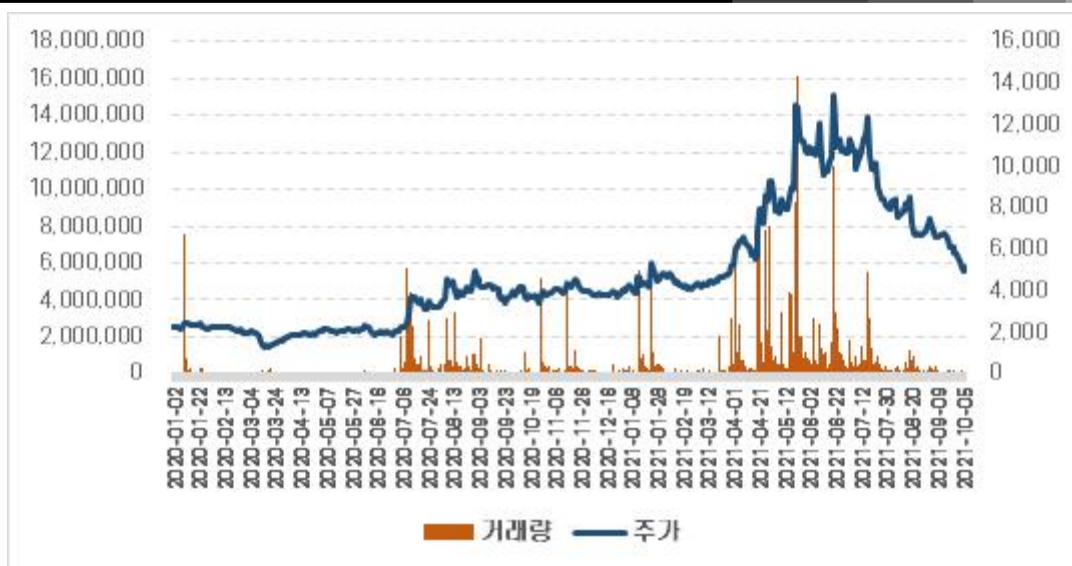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홈페이지(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지배구조 관련 사항으로는 별도의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 업무 교육 실시 수행 관련 사항은 없었으나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장기 배당정책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표와 이사회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6개월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1.10.)